

채소 안정되니 육류 ‘흔들’…국민 음식 치킨도 ‘비상’

배추·양파 등 일부 채소 ‘하락세’
돼지 수요 증가…삼겹살 9.3% ↑
‘AI 발생’ 브라질산 닭 수입 중단
“수급 모니터링…공급 확대 추진”

배추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기 무섭게 계란 및 육류 가격이 치솟으면서 밥상 물가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시기후, 가축전염병,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변수로 인해 먹거리 물가 추이를 예상하기도 어려워 소비자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8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기상 호조와 함께 출하량이 증가한 채소 및 과채류 등이 내입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던 농산물 물가는 일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광주지역 배추 1포기 가격은 3740원으로, 전월보다 33.17% 하락했으며 평년과 비교하면 23.06% 낮아졌다. 원활한 생육으로 반입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파(1kg)와 대파(1kg) 가격은 전월보다 각각 9.46%·1.56% 하락했다. 다만 무는 여전히 평년보다 56.99%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깐마늘(1kg)은 이시기후 영향으로 헛마늘 출하가 다소 지연되면서 가격이 전월보다 6.12% 상승했다.

고공행진하던 채소류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반면 돼지고기 등 일부 축산물



배추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기 무섭게 계란 및 육류 가격이 치솟으면서 밥상 물가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광주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지역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을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5월 기준 삼겹살 100g 소비자 가격은 2598원으로 1년 전 같은 달(2377원)보다 9.3% 비싸졌다. 월별 삼겹살 가격은 올해 들어 △3월 2481원 △4월 2486원 △5월 2598원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삼겹살보다 저렴한 앞다리살(100g) 가격은 전년보다 8.17%, 평년보다 15.13% 올랐다. 이는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일부 부위 수요가 늘

면서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상승해 부위별 소비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이 증가해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계란 산지 가격이 한 달 새 이유 없이 급등해 정부가 농가를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올해 2월 개당 146원에서 3월 180원으로 한 달 만에 23.3%나 뛰었다. 축산유통정보에 따른

계란 특란 30구의 소비자 가격 역시 지난 3월 6393원에서 지난달 6844원으로 7.05% 상승했다.

이번 계란값 인상 요인으로는 왜곡된 계란 유통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계란 산지 가격은 축평원이 발표하는 가격과 산란계협회가 발표하는 가격으로 이원화돼 있다. 축평원의 개별 농가와 유통인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실거래 가격이지만,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산지 가격을 고시해 왔다. 이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일종의 협상 기준 가격으로 미리 제시하는 ‘희망 가격’으로, 유통업체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산지 가격 제도를 이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생산자협회의 산지 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가격 체계를 일원화하는 ‘계란 가격·조사 발표 체계 및 농가·유통인 거래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산란계협회는 “정부가 달걀 가격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산지 가격 고시 폐지는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유통업체도 큰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닭고기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조류 독감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브라질산 닭과 계란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

문이다.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하우그란지두술주 몬치네그루 지역의 상업용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이 냉동 닭고기 전체 수입량의 대부분을 브라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전체 닭고기 수입량(5만1147톤)의 88%인 4만5211톤을 브라질에서 들여왔다. 이에 브라질산 닭고기와 달걀을 대거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의 경우 한동안 물가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브라질산 냉동육은 특히 국내 치킨 업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치킨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 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서 양파 할인 행사

422톤…21일까지 최대 15%

전라남도는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산지 물량 소비 촉진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1103개소에서 7일간 최대 15%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2025년산 조생양파 생산량 증가와 중간생존 출하 본격화로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업관측에 따르면, 2025년산 조생양파 생산량은 약 21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보다 7%, 평년보다 2% 증가한 수치다.

실제 전남과 경남·북 등 주요 주산지

에서는 6월 초부터 중간생양파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이 급증하면서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진데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 진작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총 422톤 규모의 양파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할인행사는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산지 공급 가격을 지원하고, 농협경제지주가 할인판매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양파를 기존보다 7~15%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양파 1망(3kg)의 일반 판매 가격은 5500원이나 할인 기간 4700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지원 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행사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중국 윈난성 기업간 교류 확대·경쟁력 강화”

광주경총·한국윈난기업연합회 협약
판로 개척·투자 등 경제 교류 협력

광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윈난(운남)기업연합회는 지난 1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둥주총영사관에서 허황, 췌즈보 부총영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경총과 윈난기업연합회 간 경제, 무역,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회원 기업들의 발전은 물론 양

국 간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 및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주요 생산품의 판로 개척 및 투자 환경 조성 등 경제 교류 지원, 회원 기업들의 수출입 증진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 공유, 경제 교류단 및 투자 유치단 상호 방문과 친선 활동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원활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윈난기업연합

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광주지역 기업들이 중국 윈난성과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 회원사들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영룡 윈난기업연합회장은 “이번 광주경총과의 업무협약은 양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롯데마트, ‘오투기 참깨누들’ 봉지면 단독 출시

칼로리 부담이 적은 누들면이 봉지라면으로 나왔다.

롯데마트는 지난 15일 ‘오투기 참깨누들(4입)’을 대형마트 단독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투기 참깨누들’은 유망면 대신 당면으로 제작해 한 봉지당 칼로리가 210kcal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인 라면 한 봉지의 평균 칼로리(약 500kcal)보다 약 60% 낮은 수치다. 더불어 참깨라면이 가지고 있는 고소하면서도 얼큰한 국물맛을 그대로 구현해 기존 라면의 맛을 보존했다.

또 롯데마트는 대형마트 채널 특성상 컵라면보다 봉지라면의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누들면을 봉지라면 형태로 기획했다.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대형마트에서는 대용량 구매가 많아 부피가 작은 봉지라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컵라면 대비 봉지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투기 참깨누들’을 6월 4일까지 1000원 할인한 5980원에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롯데슈퍼에서도 동일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롯데마트는 ‘오투기 참깨누들’ 외에도 당면으로 제작한 ‘오투기 옛날잡채(4입)’와 ‘오투기 옛날 매콤잡채(4입)’를 각 6980원에 판매한다.

나다운 기자

매일 100% 현금 당첨 물렛 기회

광주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 입출금 통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모Wa모Wa 저축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미리 설정한 챌린지 금액만큼 잔액을 늘리는 데 성공하면, 매일 물렛을 돌려 100% 현금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형 금융 이벤트다.

전월 월평균 잔액 대비 챌린지 금액(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 물렛 이용이 가능하며, 금액 구간별 최대 3000명씩, 총 9000명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물렛은 최소 1원부터 최대 3000원의 당첨금을 랜덤으로 즉시 지급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 혜택

이 제공된다. 물렛 참여 고객 중 △매월 추천 11명 △매월 잔액 증가 상위 10명 △연말 기준 잔액 증가 상위 1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쿠폰을 제공한다.

아울러, 매월 물렛 참여 횟수가 5회 이상인 고객에게는 광주Wa뱅크 내 ‘혜택라운지’ 입장권이 지급된다. 혜택라운지를 통해 제휴사의 다양한 할인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품은 이벤트 참여 시 마케팅 수신 동의(휴대폰 메시지)를 완료한 고객에 한해 지급되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Wa뱅크,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송석현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최근 앱을 활용해 제테크를 실천하는 ‘앱

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광주은행은 재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금융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제 1172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7	9	24	40	42	44	4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2억300만원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870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6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